



4 **스포츠**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해 먹고 살아?”

5 **사회**
‘천원의 아침밥’ 핫살이 우리 대학에도?

6~7 **기획**
한국체대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다

12 **특집**
피와 땀은 물보다 진하다

제8대 문원재 총장 취임, 글로벌 체육 대학 향한 ‘첫 걸음’



문원재 총장이 취임식 축하공연 도중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모든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본교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제8대 문원재 신임 총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한국체대에 요구하는 역할을 담아내고 모든 체육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만들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취임식 직후 내빈들의 축하사가 진행됐다. 박성민, 이용,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등 내빈들이 문원재 총장을 향해 축하 인사말을 건넸다. 또한, 문 총장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체대가 글로벌 스포츠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리라 믿는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취임식 직후, 우리 대학의 지역구인 김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구 갑)은 “여당과 정부는 엘리트 체육 발전에 관심이 많다. 부족한 훈련 시설을 꼭 고쳐드리겠다”라며 문 총장의 취임 축하와 함께 한국체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4월 17일, 한국체육대학교 제8대 문원재 신임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취임 전부터 ‘소통’을 강조한 문 총장은 학보사 한지용 편집장, 강현석 수습기자과 인터뷰를 가지며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더불어 대학 설립 뿌리인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문원재 총장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Q. 취임 직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최근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총장 직무 시작 후, 보직 임명과 직원 분들 인사이동 및 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업무 하다가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화원 분들 및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선생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려움과 개선점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불편함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Q. 그렇다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그렇습니다.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통 부재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통은 이를 방지해준다는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의견을 청취해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통이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수님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과도 정기적 혹은 분기적으로 소통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경청을 하며 의견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현재 홍보팀 및 소통팀을 총장 직속으로 하여 소통 창구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항상 총장실 문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구성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Q. 학생 수 감소 등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대학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자체 수입 마련을 위해 임기 중 가장 힘써보려는 대책이 무엇인가요?

A. ‘외국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유명 스포츠 스타 배출 및 창업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수익과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소규모로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영재 교육 및 지역사회 노인, 청소년 등 주민들의 재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생각입니다.

Q.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체육과학연구소를 통해 PT(Personal Training)나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체크하여 개인에 맞는 훈련량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말 영재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꿈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Q. 통금 시간 제한, 잔반 처리 단속 등 천마 생활관에서 개인의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입장에서 운동선수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훈련 시간과 영양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체육학과와 달리,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절제와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면 좋겠지만 다음 날 수업이나 훈련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태릉선수촌에도 절제와 통

제가 있듯, 학생들과 잘 조율해서 절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반 문제를 살펴보자면, 자율 배식이다 보니 음식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반을 처리하는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반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더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또한, 생활관 장님과 생활관 운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다는 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총장이라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관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총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학생들, 생활관장님과 잘 소통하고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총장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Q.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교양 수업 확대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양화인데요. 총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A.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흐름에 걸맞은 교양수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학과 선수가 국제대회 시상식에 올라가 그동안 고생해서 메달을 따게 된 과정을 인터뷰로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교양과목을 통해 스피치 능력을 기른다거나 요즘 떠오르는 ChatGPT와 같이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체대를 ‘스포츠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과의 교류 역시 아시아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북미, 유럽 등 여러 나라와

MOU를 맺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Q. 한국체대가 전문체육 육성 시스템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 우리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이 과거에 비해 조금 저하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의 잘하는 분야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재정 혹은 과학적 원인을 면밀히 살펴 24개 종목 모두 선두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본연의 의무를 지키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일반학과 학생들과 체육학과 학생들의 교류를 더 자주 가져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Q. 그렇다면 끝으로 학생들과 공유할 만한 총장님이 꿈꾸고 계신 한국체대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나요?

A. 한국체대 졸업생으로서 부담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 총장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 우리 학교는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국체대가 글로벌 스포츠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발전을 마련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요구사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움직이며 소통을 주도하고 한국체대 발전의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강현석 수습기자 fcnx000@naver.com



문원재 총장이 한지용 편집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생명을 살린 임용진 학우의 ‘당연한 일’



이런일에서 학우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임용진 학우

지난 4월 7일 임용진 학우(특수체육교육 19)는 평소와 같이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이었다. 임 학우는 10시 50분경 체육과학관 1층 편의점 주변을 정리하던 중 편의점 내부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한다. 다행히 119에 신고는 이뤄지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나서서 응급 조치를 시작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했음에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 또 119와 전화가 연결된 이후에는 구조대원이 말해주는 방법에 맞춰 열심히 움직였다. 임 학우는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야 본인이 수업이 있음을 깨닫고 강의실로 향했다.

임용진 학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말

했다. 이후 경위를 묻자,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면 허를 찌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허를 빼내려고 노력했으나 턱 근육의 경련이 워낙 심해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먼저 거품과 섞여 나오는 피를 흘려내기 위해 학생의 몸을 오른쪽으로 눕혔다. 이 과정에서도 관절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몸을 손을 대지 않고 옷을 잡아 신체를 돌리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옷깃을 내리는 등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런 지식의 배경을 묻자 “과의 특성상 교직 이수를 위해선 응급처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했다. 그 당시 체득했던 지식이 자연스레 발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내가

아니어도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조치했을 것”이라며 겸손함을 표했다. 그날 이후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응급 처치를 받았던 학생은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져 관련 검사를 받고 회복 중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았다. 그는 임 학우를 직접 만나 연락처를 받고 메시지를 통해 장문의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임 학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응급처치 교육과 상황 조치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삼 처장의 출사표, “학교 발전에 도움 되고 싶다”

문원재 신임 총장이 직무 수행을 시작함에 따라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본교는 4월 17일자로 교무처장에 생활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조준호 교수, 기획처장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박선영 교수, 훈련학생처장에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김진해 교수(최고경영자과정원장 겸임)를 각각 임명했다.

교무처장 조준호 교수는 “총장님을 보좌해서 학교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리더십 중에서도 서번트 리더십(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리더십)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교직원, 학생을 잘 섬겨서 학교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우리 학교가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획처장 박선영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한 대학 발전과 대학교성원 및 조직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교육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훈련학생처장 김진해 교수는 “우리 학교 선수들이 가능하면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많이 발탁되도록 지방훈련이나 전지훈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범위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국가대표 및 체육계와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 취업도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또 심층적으로 생각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무처장·기획처장·훈련학생처장의 임용기간은 2025년 4월 16일까지이며, 이를 제외한 보직 인사발령자의 임용기간은 2025년 4월 18일까지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인사발령		
4.17.자		김한별 대학원주임교수
조준호	교무처장	이제훈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박선영	기획처장	변호진 체육학과장·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김진해	훈련학생처장·최고경영자과정원장	윤지운 경기지도학과장·스포츠융복합 대학원 주임교수
		육현철 사회체육학과장
4.19.자		박재명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장·사회체육대학원 주임교수·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김진호	대학원장	김경진 특수체육교육과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
김현남	사회체육대학원장·스포츠융복합 대학원장	김수잔 스포츠산업학과장
정광재	스포츠과학대학장·산학협력본부장·산학협력단장	구정훈 운동건강관리학과장
윤석훈	생활체육대학장·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	김예성 노인체육복지학과장
안근아	학술정보원장	이지원 공연예술학과장
이영선	생활관장	정국현 태권도학과장
조옥상	인재개발원장	김현정 교양교직과정부장
김인수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허진석 학보사 주간·방송국 책임지도교수·미디어본부장
박상균	체육과학연구소장	임정우 생활관 부관장
강광배	평생교육원장	
오재근	보건진료소장	

4월 교내 문화교류사업 사격 프로그램 불발

총학생회, “소통 문제 해결해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들어 나갈 것”

지난달 24일 18시 30분, 교내 문화교류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격 프로그램의 참여자 20명이 사격장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프로그램 주최 측인 총학생회(이하 ‘총학’)로부터 당일 ‘프로그램 취소’를 전달받은 것이다.

매달 하나의 종목을 선정해 스포츠과학대학(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학우들이 멘토, 타 대학(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학우들이 멘티가 되어 종목을 지도하고 체험하는 해당 사업은, 당초 대학 구성원들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3월 테니스 종목을 시작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4월에는 사격 종목으로 그 인기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돌연 2회차에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말았다. 소식을 접한 학보사는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을 만나 프로그램 불발 경위의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프로그램 진행 한 달 전, 총학은 사격장 사

용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격부 담당 교수와 조율 과정을 거쳤다. 4월 마지막 주 모든 날짜에 시간과 장소를 할애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24일로 최종 일정을 확정된 총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순차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프로그램 당일 시작 20분 전, 급작스럽게 사격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사격부 학우들의 시합 준비로 사격장에 야간 훈련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급히 훈련을 담당하는 사격부 조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조교는 프로그램 진행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프로그램 취소는 불가피했고, 참여자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마지막 주라고는 했으나 특정 날짜를 짚어서 확실하게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실무를 담당하는 사격부 조교와는 직접

컨택을 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총학과 사격부 담당자들 간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발생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에 프로그램 준비 과정의 미흡함과 행사직전 사격장 사용 불가 등 통보에 미리 대응하고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와 입장을 밝히며, 어렵게 발걸음 한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10분 전 대면으로 상황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함을 공지하며 사과를 드렸고, 이후 참여자 단독방을 통해서도 사과문을 게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격부 담당자와 추후 한 번 더 논의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방지 및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민정 기자 bizarre_jade_stay@naver.com

취업시장에 한 발짝 가까이!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특강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특강이 4월 25일, 5월 3일 두 번에 걸쳐 필승관 2층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1차 취업특강은 ‘스포츠산업 트렌드와 그에 따른 대외활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와우메니지먼트그룹 스포츠 이벤트 팀 수석과장을 맡고 있는 박재민 강사가 맡았다.

크게 1부는 마케팅 전략, 2부는 대외활동 정보로 구성됐다, 1부에서 박 강사는 마케팅이 지녀야 할 자질 3가지로 ‘정보력’, ‘본인만의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뽑아 설명했다. 또 슬램덩크를 예시로 들며 스포츠 마케팅이란 ‘슬램덩크의 열기를 어떻게 KBL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 대외활동으로는 커뮤니티 활동(△스마트SmarteR △스마트잡알리오) 및 여러 스포츠조직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스포츠와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강사는 특강 후 인터뷰에서 “한국체대 학생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다”라며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진출하는데 큰 가치를 지녔음을 강조했다.

1차 취업특강을 들은 이호성 학우(사회체육 20)는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특강에 참여했는데 스포츠와 마케팅에 관해 배운 점이 많다.”라며 스포츠산업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2차 취업특강의 주제는 ‘자기분석과 강점 찾기’였다. 현재 상명대학교 지능형로봇학

과에서 산학협력 초빙교수로 재임 중인 김현빈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강의에 앞서 요즘 인기 있는 MBTI 애기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강의 내용은 특강의 제목처럼 자기분석과 강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성공보다 본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한 김 교수는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강의 중 “자신의 단점을 파악해야지 그걸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자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DISC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며 강점을 찾고,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특강 직후 김 교수에게 강의 소감을 물었다. 그는 “한국체대에서 한 강의는 처음인데 건물과 운동부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체육대학 학생들이라 취업에 대해 소극적일 줄 알았으나 타 대학보다 더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서 감동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진로에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회에서 원하는 융복합 인재가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라.”라며 조언했다.

2차 특강을 수강한 강민서 학우(체육 22)는 “평소에도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걸 좋아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든지 많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서진 기자 psj3158gh@naver.com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2023 한국운동역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한국체대 합동강의실에서 열려

4월 21일 ‘2023 한국운동역학회 춘계 학술세미나’가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운동역학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주최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운동역학회 임영태 회장과 한국체육학회 이한경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역학의 의미를 찾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임영태 회장의 개회사와 이한경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구두발표, 2부 초청 강연, 3부 구두발표 후 임시 총회와 폐회사를 끝으로 이번 춘계 학술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1부는 ‘기계체조 도마 수행력에 따른 조주구간의 운동학적 특성 연구’를 포함한 6개의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익봉 교수의 ‘스포츠 동작분석에 따른 스포츠 특이적 (재활)훈련 방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달리기 착지 유형에 따른 인체 충격

분포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5개의 발표가 있었다.

3부에서 ‘달리기 착지 유형에 따른 인체 충격분포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체육대학교 이영성 박사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매우 떨렸다. 더욱이 내가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에서 학회가 개최되어 발표 내내 더 긴장됐다. 그래도 내가 한 연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박사는 “코로나 19 기간에는 많은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과 발표를 들어서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대면 회화를 통해 오랫동안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좋았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소영 기자 qkrthdud0330@naver.com

천마 생활관 이슈,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26일 늦은 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체육학과 천마 생활관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입을 모아 통제가 과하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 학보사 역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제보를 받았고 체육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학과 A 학우는 “수업 시 모자와 슬리퍼를 통제하며, 저녁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식당이 갑자기 오후 7시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잔반을 남길 시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누적 시 퇴관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 담배를 잡기 위해 불시에 방문을 벌격 열고 호실 점검을 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B 학우는 “통금 시간 21시는 타 대학에 비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준다고 말했지만, 정작 바뀌는 건 많지 않았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건우 체육학과 학생회장(체육 유도 20)과, 오진혁 부학생회장(체육 태권도 20)은 발빠르게 학우들에게 생활관장과 소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회장단은 생활관장 이영선 교수(투척부)를 만났다. 이들은 생활관 장실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를 묻기 위해 기자가 직접 박건우 체육학과 회장과 이영선 생활관장, 김택성 생활관 조교를 만났다. 이 교수는 먼저 “전 관장님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셔서 규정이 완화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존 규

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강행한 점은 내 실수”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통금시간 조절 “변화 의향 있다”

체육학과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른 아닌 통금 시간 조절이었다. 대학생 입장에서 21시 통금은 이를 수밖에 없다. 이에 박건우 학생회장은 직접 생활관장 이영선 교수에게 통금시간 조절을 건의했다. 이 교수는 “논의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규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학과 학생들은 우수한 운동선수 양성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학비·기숙사비·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학생들의 불만을 마냥 외면하지 않았다. 김 조교는 “적절한 시간을 정한 후 시범 운영 도입을 관장님께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각 종목 지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새벽 운동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 벌격 열고 점검? 다시는 없을 것

또 다른 이슈는 호실 점검이었다. 박건우 회장은 “사감선생님들이 호실 점검을 할 경우, 반드시 노크를 하고 방문하실 것을 약속 하셨다”라며 주요 논란이었던 호실 점검 이



한국체육대학교 천마 생활관 전경

야기를 먼저 꺼냈다. 다만, 흡연 및 음주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생활관 측의 의견에는 학생회도 동의했다. 김택성 조교는 “해당 민원이 들어올 시 민원을 묵과할 순 없다. 방송으로 모든 인원을 복도로 부른 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방문을 벌격 여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조교는 “3, 4년 전에는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으나 인권 교육을 받은 후 그러한 행위는 전면 폐지됐다. 방송으로 학생들을 복도로 부르는 이유도 인권 이유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만약 그러한 사감이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 통제, 학생들의 협조 필요해...

식당 통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리사들 퇴근 시각은 오후 7시다.

이후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날 출근하는 조리사들이 새벽에 잔반 청소를 해야 한다. 식사 준비로 바쁜 새벽에 청소까지 하기 어렵다는 게 조리사들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규정대로라면 오후 7시 이후 사용이 불가하다. 전 관장님께서 배려해주셨지만, 조리사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통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식중독 우려 및 식당을 통한 무단 외출, 늦은 식사로 인한 체중 관리 실패 등도 통제의 이유로 꼽았다.

별개로 박건우 회장은 남자 생활관에도 여자 생활관과 동일하게 각 층마다 전자레인지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잔반을 남길 시 벌점 부여” 이슈의 경우 이영선 교수는 “이름을 적긴 했으나 실제로 벌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잔반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매월 이백만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학생회, 생활관 간부 측은 입을 모아 자율 배식인 만큼 뒤늦게 밥을 먹는 학우들을 배려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복장 논란의 경우 이영선 교수는 “한 학생에게 직접 지적했던 기억이 난다. 모자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운동할 때 생명과도 같은 발을 다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업하시는 교수님께 예의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예의를 지켜 줄 것을 부탁했다.

모두가 만족할 천마 생활관을 위해

끝으로 체육학과 박건우 학생회장은 “체육학과 학우 대부분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회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김택성 생활관 조교는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소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길 당부했다. 생활관장 이영선 교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이 포함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영선 교수는 회장단과 각 부 주장들을 포함 시켜서라도 소통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체육학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운동선수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천마 생활관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제3자 한국체대 로고 출원, 차분하게 정리한 우리 대학



4월 11일과 4월 12일자로 출원을 완료한 우리 대학 2가지 형태 로고

3월 27일 언론사 ‘브릿지경제’에서 “한국체육대 새 로고-상표 뺏기나...제3자 출원에 직원들 ‘우왕좌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체대 로고의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해 출원됐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우리 대학이 뒤늦게 인지했다는 것이다. 담당 기자에게 어떤 경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인터

뷰를 요청했으나 응답은 오지 않았다.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임이삭 교수는 “상표는 아무나 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출원은 ‘신청’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 로고가 바뀐 시기에 우리 대학도 출원하려 했으나 예산 및 절차의 문제로 당시에 하지 못했다. 바로 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의 잘못은 아니다. 한국체대의 로고와 상표는 한국체대의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설사 제3자의 출원이 등록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즉 출원만 한다고 상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의 상표권 ‘등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상표권을 담당하는 한국체대 산학협력단 측은 “상표출원자가 학교로 연락이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출원 또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마친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도서관?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메타버스 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학우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용 방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이에 다시 한번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짚어보려 한다.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관리팀 김기동 팀장과의 Q&A 인터뷰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Q. 도서관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시험 기간에는 연장되나요?

A: 시기마다 이용 시간이 변화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5층 퍼스널 랩/스페셜 랩: 매일 07:00~22:00 ●5층 프로젝트 룸, 7층 메타라운지: 평일 09:00~18:00 ●8층 북 서비스: 평일 09:00~21:00
중간·기말고사
●5층 퍼스널 랩/스페셜 랩: 매일 07:00~23:45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 기간 전/후 약 12일) ●5층 프로젝트 룸, 7층 메타라운지: 평일 09:00~18:00 ●8층 북 서비스: 평일 09:00~21:00
방학 중
●5층 퍼스널 랩/스페셜 랩: 매일 07:00~22:00 ●5층 프로젝트 룸, 7층 메타라운지: 평일 09:00~18:00 ●8층 북 서비스: 평일 09:00~18:00

Q. 도서관 5, 8층에 열람석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않아요.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A: 구글 혹은 애플스토어에서 ‘한국체육

대학교 학술정보원’ 앱을 설치하시면 원하는 층과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라 이용 중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휴학생은 열람실을 따로 예약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휴학생도 열람실(퍼스널 랩, 스페셜 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8층 데스크에 방문하여 휴학생 열람실 사용을 승인 처리해야 합니다.

Q. 5층에 있는 프로젝트 룸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A: 프로젝트 룸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은 불가하고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며, 예약 신청자의 QR코드로만 출입문이 열립니다. 또 예약 시간 20분 이후부터는 입장이 불가하니 이용하실 때 주의 부탁드립니다!

Q. 학생들 사이에서 ‘도서관 예약제가 의미 없는 것 같다. 예약하고 해당 자리에 가보니 다른 학생이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도서관 좌석 예약제는 현재 대학교 대부분에서 시행 중입니다. 무분별한 좌석 점유와 사석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방문자 수와 이용 시간의 통계가 정확해집니다. 이번 ‘열람실 개방 시간 연장’에도 예약제 시스템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예약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전 열람실은 개방되어 있었기에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석 이용 대비 예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현재 위치, 좌석번호와 함께 8층 데스크 혹은 02-410-6645로 문의하시면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서관 문화는 학생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우리 대학 육현철 교수, 위원으로 참여



4월 3일 열린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식에 참여한 육현철 교수(왼쪽 첫 번째)

4월 3일,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체육 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 자문하는 기구로 송파구 최초로 구성됐다.

위원으로 위촉된 생활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육현철 교수는 “송파구정장직 인수위

원회 교육문화체육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으로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로 살았고, 우리 한국체대에 입학해 엘리트 선수로 활동했다. 우리 대학과 협업을 통해 송파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구는 첫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촉식 수여와 함께 올 한해 송파구의 체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체육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해 먹고 살아?”

우리들의 불투명한 미래

강민지 수습기자 kmjee7074@naver.com

‘넌 꿈이 뭐야?’

해당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국 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를 포함한 전국 약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했다는 응답은 33.9%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37.6%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알고 불안해하며 좌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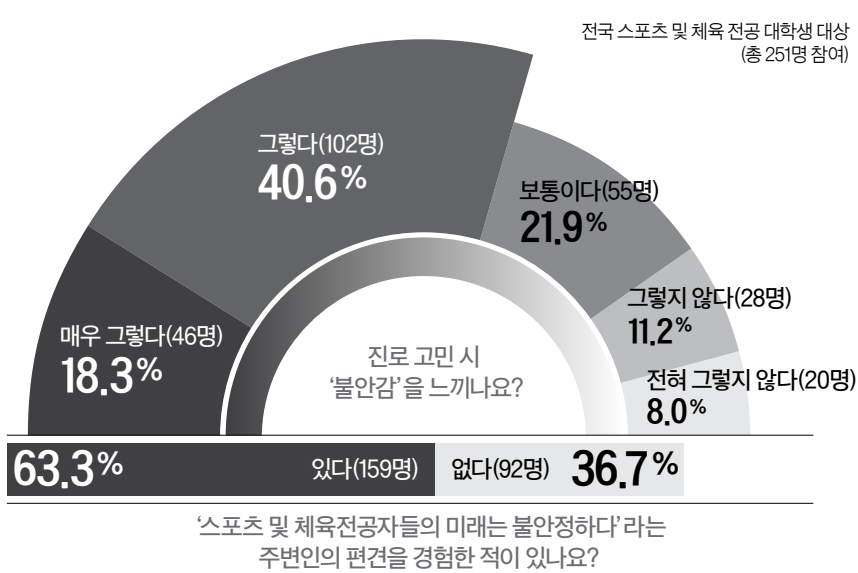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해 먹고 살아?’라는 말 들어보았는가? 특히, 스포츠 전공자들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다. 실제로도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포츠’라는 전공을 살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말 스포츠계 진로는 불투명한가? 기사를 통해 스포츠 및 체육 전공의 불투명한 미래를 조사하고 전공자가 갈 수 있는 진로 방향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전국 체대생, 편견 속 불안정한 진로

한국체육대학교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스포츠 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본 설문은 전국 스포츠 및 체육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총 251명이 응답했다.

스포츠 및 체육전공자들의 불투명한 미래'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대학 졸업 후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진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153개(‘매우 그렇다’ 77개, ‘그렇다’ 76개)로 61.0%를 차지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47개(‘그렇지 않다’ 39개, ‘전혀 그렇지 않다’ 8개)로 18.7%였다(‘보통이다’ 21.1%). 명확한 진로가 있다고 이들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가? 아니다. 총 148명(58.9%)이 ‘진로 고민 시 불안감을 느낀다(매우 그렇다 46명, 그렇다 102명)’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 및 체육전공자들의 미래는 불안정하다’라는 주변인의 편견을 경험한 적 있는가에 ‘있다’라는 응답은 159개로

63.3%를 차지했다.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할 거냐.,” “졸업하면 트레이너 해?,” “체육 교사 아니면 할 거 없지 않아?” 등 많은 사람이 스포츠 전공자는 직업 선택이 한정적이라는 편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체대 진학에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직업 수명이 짧다.,” “임금이 적다.,” “비정규직이다.,” “금방 대체할 수 있는 직군이다.”라며 스포츠 관련 직종은 불안정하다고 일반화한다. 이 외에도 “공부 못하면 체대 간다.,” “여자가 체육 해서 뭐냐.,” “1등 아니면 성공 못 한다.” 같은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산업과의 교류로 발전하는 스포츠

근래에는 없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체육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정했을 때, 졸업 후 취직이나 진로에 있어 불안정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활용한 진로는 몇몇 큰 기업 취업으로 귀결되기보다 다양한 산업과 융화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스포츠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와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이경진(노인체육복지 18)

편견이 원동력으로

저는 체육 관련 공기업 또는 협회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사기업에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친척으로부터 “간혹학과나 경영학부를 선택하는 게 취업할 때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어쩌면 편견은 제 원동력이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체육 관련 공모전이나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경북대학교 임유정(체육 21)

전망이 좋지 않다는 편견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제가 체대 입시를 한다는 것을 알고 말리셨습니다. 전망이 좋지 않고 뭐 먹고 살지 걱정된다고요. 또, 아는 형은 체대 나오면 헬스 트레이너밖에 안 하는데 그건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김경원(생활체육 23)

준비된 청년들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저는 ‘트레이너’가 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피키퍼스널짐’이라는 휘트니스 센터 막내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부산 보건대와 신라대학교를 다니며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 스펙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피키퍼스널짐 지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스포츠 분야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라대학교 예필용(체육 20)

예체능계 취업난, 진위를 가리다

2022년 12월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졸업자 54만 9,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학자, 취업 불가능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47만 3,342명이었으며, 취업자는 32만 685명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취업률은 67.7%로 전년 대비 2.6%p 증가(2020년 전체 취업률 65.1%)한 수치다. 하지만, 계열별 취업률에서 체육을 포함한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의약계열(82.1%), 공학계열(69.9%)은

전체 취업률(67.7%)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예체능계열(66.6%), 자연계열(65.0%), 사회계열(63.9%), 교육계열(63.0%), 인문계열(58.2%)은 전체 취업률보다 낮다.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취업률은 어떨까? 한국체육대학교보는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을 통해 2021학년도 학과별 취업률을 분석했다.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자 전체 취업률은 72.4%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 67.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학과별 취업률은 편차가 크다. 생활무용학과(現 공연예술학과, 88.5%), 체육학과(87.8%), 레저스포츠학과(現 스포츠산업학과, 72.2%), 사회체육학과(69.1%)는 전체 취업률보다 높지만, 운동건강관리학과(64.8%), 노인체육복지학과(61.8%),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58.1%), 태권도학과(53.8%), 특수체육교육과(51.4%)는 낮다. 이와 관련해 이신열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21년 학과별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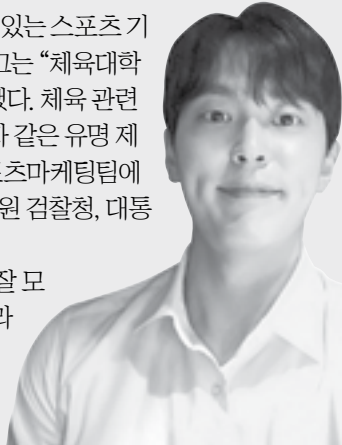


[동문 인터뷰] “체육전공자라고 체육만 해야 하나요?”

이신열 동문(사회체육 12)은 현재 새마을금고 대출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동시에 ‘두드림’이라는 한국체육대학교 네트워크를 2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고 매일 아침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대학 시절 “단순히 체육전공자거나 체육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체육대학교만의 네트워크가 없어 진로에 대한 불안이 컸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전공자의 진로에 대해 그는 “스포츠 전공 취업의 문은 매우 작다.”라며 “1년에 한두 번 있는 스포츠 기관 채용을 목 빠지게 준비해도 채용인원도 한두 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는 “체육대학도 문과라는 시각으로 시야를 넓혔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동기, 선배, 후배들도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녹십자, 화이자 같은 유명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먹는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대한항공 승무원, 기장, 금융업 관련 증권사, 5대 대기업 해외영업팀, 법원 검찰청, 대통령 경호원 등 정말 다양하다.”라며 체육계 외에도 많은 길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 그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종합인력개발원 시스템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며 학교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학내 인재개발원은 학생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제공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선배들이 현직 선배를 연결해 주고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겠다.”라며 한국체육대학교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을 남겼다.



이신열 동문(사회체육 12)

스포츠 산업에서 살아남기

한국체육대학교에서 8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졸업 후 스포츠 및 체육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라는 물음에 88.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라서’, ‘전공 경험을 살리는 것이

나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0개(그렇지 않다 45개, 전혀 그렇지 않다 5개)로 19.9%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123개(‘매우 그렇다’ 27개, ‘그렇다’ 96개)로 49.0%를 차지했다. 현재 스포츠 분야 일자리 현황은 어떠한가? 스포츠 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얻고자 인재개발원장 조옥상 교수와 직접 만났다.

[교수 인터뷰]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세요.”

4월 19일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조옥상 교수는 11년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근무 중이다. 그는 자신이 ‘한국체대 94학번’으로 “직책을 맡기 전부터 졸업생의 취업과 향후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포츠 전공자에 대한 편견의 원인이 ‘아직 체육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이 체육 전공자들의 진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직종이 정말 많다.”라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물론 그곳에도 체육인이 아닌 타 전공생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그들이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한편,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에 대해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취업을 모두 포함한 취업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졸업생의 직업이 다양한 것 같지는 않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체육학과는 졸업과 동시에 실업팀 선수로 활약하든가 지도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체육 교사를 하거나 영역을 완전히 바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외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생활체육대학 학과에 대해서는 “무용학과나 태권도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로와 관련해 자기들만의 영역은 없는 것 같다.”라며 “최근 4, 5년 동안에는 공무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또, 스포츠 분야 일자리에 대해 “특히 사회체육지도자나 전문체육지도자 등 지도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1년마다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스포츠 전망은 밝을 것’이라 의견을 표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새로운 분야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며 양궁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활과 프로스펙스, 프로윌드컵, 산악 용품 등 국산 메이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용품 산업, 스포츠마케팅 산업은 상당히 발전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잡지 못해 인재개발원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학생들이 몰랐던 것 같다.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이 국내, 국외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곳에 지원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또 입사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를 해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옥상 인재개발원장(체육학과 교수)

‘천원의 아침밥’ 햇살이 우리 대학에도?

1,100원, 1,800원, 4,800원 ... 순서대로 삼각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컵밥의 가격이다. 식비 부담이 커진 대학생들은 편의점으로 향하지만, 마주한 것은 올라버린 가격과 여전히 가벼운 지갑뿐이다. 결국 편의점에서조차 느껴진 물가 상승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한 줄기의 빛. 한국체대 학생들에게도 ‘천원의 아침밥’ 햇살이 내릴까?

박서진 기자 psj3158gh@naver.com

천 원 학식 열광이 주는 의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도 쌀 소비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다. 5~6년 전부터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이야기가 작년부터 대학가를 넘어 국가를 들쭉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바탕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고민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2023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찍었다. 2023년에는 3.5%의 상승률을 전망한다. 청년층은 이러한 물가상승률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체감경제고통지수’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으로, 현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경제고통지

수는 25.1이다. 전체 평균 수치는 16.28로, 25.1은 전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은 어떤 부담을 지고 있을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인식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48개의 대학에서 2,076명이 응답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56.1%의 학생들이 식비 지출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한 ‘물가 상승 이후, 가장 먼저 줄인 지출 항목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77.2%의 학생들이 식비지출이라고 말했다.

경제침체, 물가 상승, 취업난이라는 아득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은 식비부터 줄여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한 줄기의 빛을 찾아냈다.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



그러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전대넷은 작년 9월 7일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식 가격 인상 반대 및 천원의 아침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관해 “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생

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 전국 330개의 대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학교는 10%도 되지 않는다”라며 사업 수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그 뒤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과 안민석 의원(더

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이후 10월 21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상운 교육부 차관이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윤석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2배 이상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을 7.78억 원에서 15.88억 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선정된 41개교(경희대, 고려대, 순천향대 등)를 포함하여 신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대학가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들떴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생들만 ‘천원의 아침밥’을 울부짖고 있었다. 추가 모집 소식에도 대부분 대학이 주춤거렸다. 그 이유는 뭘까?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식수 인원당 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식 원가에 농식품부 지원비 천 원, 학생이 내는 식비 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천원의 아침밥’ 1인당 단가는 3,000원에서 5,500원 사이의 값이다. 즉, ‘천원의 아침밥’이 완성되려면 필요한 학교 부담금이 1,000~3,500원 선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재정 상태가 어려운 국립대는 더욱 주저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원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없다 5.7%

필요하다 94.3%

운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고 62명(15.3%)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필요해서 골랐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라고 답한 23명(5.7%)의 학생 중 8명은 ‘아침에 학교를 오는 게 힘들’이라고 답했고, 다른 8명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다’라고 응답했다.

아침밥 종류를 선택하는 질문에 66.8%의 학생이 일반식을, 31.7%의 학생이 간편식을 골랐다. 일반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침을 집밥처럼 먹고 싶어서(국, 반, 반찬)’에 응답한 학생이 59.2%(239명)로 가장 많았다. 간편식을 선택한 이유로 ‘빠른 아침 식사를 원해서’라는 응답에 69명이,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를 66명이 선택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심주용 학우(사회체육 18)는 “학식 비용으로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약 13,000원가량이다. 평일만 계산해도 달로 치면 26만 원이다. 집 월세가 50만 원인데 그 절반 이상의 값이 식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며 식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추가로 “우리 학교 규모에 천 원 학식은 어려울 것 같다. 학생이 2,000원 부담하여 아침을 먹는 방안은 어떨지 생각한다.”라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원했으며 간편식보다 일반식을 선호했다. 과연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가능할까?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

중요한 것은 다음 계획이다. 박 주무관은 “총장님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며 “2학기에 발전기금 같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대 변경 등의 방안을 밝혔다.

식수 인원당 원가 측정은 얼마인지 김효경 영양사에게 물었다. 그는 “식수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측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2학기에 한다면 일반식으로 밥과 국, 샐러드와 두 가지 반찬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2학기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농식품부의 지원을 안 받는 대신, 농정원에서 제시한 운영 지침인 식사 시간 제약(오전 7~11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4월에 임명된 8대 총장인 문원재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처랑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대학은 타 국립대학에 비해 예산이 적고 기부 금액도 많지 않은 편.”이라며 기부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학기에 ‘천원의 아침밥’ 기부금과 관련해 총동문회에 문의했다. 7대 총장이자 총동문회 현 회장인 안용규 회장은 “우리 대학에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며 “현 총장님과 뜻을 같이해서 사업 재원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은 “많은 학우가 관심 있는 사업이 1학기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학생회가 도울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학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학교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2023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2차 모집하겠다고 기간을 4월 28일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4월 10일, 서울시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대학은 54개교 중 5개교(9.3%)만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저조 원인을 재정 부담 등으로 보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가 모집 소식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추진 소식까지, 점차 ‘천원의 아침밥’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7일 총무팀 박경환 행정주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경환 행정주사는 “4월 17일 추가 모집에 관한 공문이 오자마자 논의했다.”라며 사무국장, 총무과장, 생활협동조합, 총장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의 결과 재정 문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꼽았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농식품부에서 식수 인원당 주는 천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가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대학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지에 관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에 문의했다. 우리 대학에 서울시의 천원 지원 여부는 중요



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4월 27일 문의 결과 “현재 지원 일정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대한 최종 선정된 대학에 지원하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번엔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박 주무관은 “인건비도 문제다. 최저시급으로 인건비를 잡아도 하루 4명, 총 20만 원이 든다.” 이어 “예를 들어 8시에 아침밥을 제공하려면 새벽 5시에 일할 분을 구해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며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이유를 전했다.

추가로 “사업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도로 농식품부에 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정원에 따르면, 사업 참여 대학은 농식품부에 제시한 목표 식수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비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조식 미운영인 대학은 인원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대학 사례로 현실화하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국립대 두 곳(경상국립대, 공주교대)과 가톨릭대학을 취재했다. 인원 계측, 원가, 재정 마련 등과 같은 우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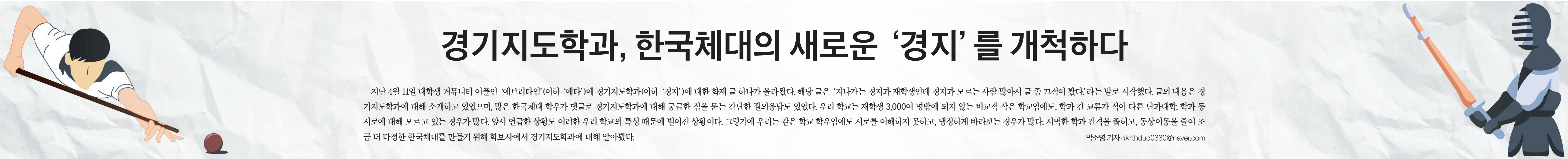
경상국립대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정확한 인원 계측 방법에 관한 질문에 경상국립대 정양덕 영양사는 “우리 대학은 원래 조식을 운영했던 대학이라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재정 마련에 관해 묻자 “1인당 원가는 5,000원에서 5,500원이다. 학교에서 2,000원을 지원받고 1,500원을 생협 자체 예산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로 아침에 일할 분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며 “우리 대학은 기존 참모급의 조리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재적학생 수가 1,400여 명으로 우리 대학(3,000여 명)의 반 정도 되는 규모의 대학이다. 국립대의 예산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 물었다. 공주교대 학생지원팀은 “학생이 내는 식비 천 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주시(지자체)와 대학이 50:50 부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는 교수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모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일부 지원 중이다. 가톨릭대 교수협 회장 성기선 교수는 “돈의 크기 문제

가 아니라 상호 협업하여 문제를 끌고 나가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체대 교수님들도 충분히 사업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실 것.”이라며 “규모가 얼마되지 않아도 상징적인 의미와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번 학기에 만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노력 중이다. 4월 중순에 임명되어 직무 수행한 지 며칠이 채 안된 문원재 총장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햇살이 구름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경기도지학과(이하 ‘경지’)에 대한 화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나가는 경지와 재학생인데 경지와 모르는 사람 많아서 글 좀 끄적여 봤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글의 내용은 경 지지도학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으며, 많은 한국체대 학우가 댓글로 경기도지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간단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우리 학교는 재학생 3,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학교임에도, 학과 간 교류가 적어 다른 단과대학, 학과 등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상황도 이러한 우리 학교의 특성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학교 학우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서막만 학과 간격을 좁히고, 동상이몽을 줄여 조 금 더 다양한 한국체대를 만들기 위해 학보사에서 경기도지학과에 대해 알아봤다.

박소영 기자 qktrhdud0330@naver.com

그들이 걸어온 길

경기도지학과는 한국체대 스포츠과학대 학에 체육학과와 함께 소속된 학과이다. ‘스 포츠로 세상을 연결하는 스포츠 혁신 리더’ 가 학과의 인재상이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 지도자나 코치, 각종 스포츠 업체 종사자 육성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지학과는 ‘경기 임상실적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며 플 러, 당구, 클라이밍, 탁구, 킥복싱 등의 개인 종목과 축구, 농구, 배구, 댄스스포츠, 세팍 타크로 등의 단체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3년, 경기도지학과가 처음 개설된 당 시에는 ‘경기지도과’로 불렸다. 당시 한국체 대에는 체육학과와 경기도지도와 두 개의 학 과만이 존재했다. 그러다 2003년, 학부제 도

경지인의 일상

경기도지학과 학우들은 어떤 일상을 보낼 지 없는 종목의 학생들이 생활스포츠대학 소속 일반학과에 입학하여 선수 생활과 학 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일반학과 에 입학한 학생선수들은 체육특기자가 아 니었기 때문에 모든 학업을 마친 후에 외부 훈련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 때문에 중 도에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 다.” 이어, “대학평가를 위한 학과 구조조 정 과정에서 체육학과에서 육성하지 않는 체육과랑 비슷하게 오후 1시까지 학교 강의 를 듣고, 그 뒤로는 ‘전문실기 현장실습’을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다른 우리

경기도지학과와 체육학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참 많다. 두 학과 모두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이다. 또, 두 학과 모두 다수의 현역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나 등록금 면제, 교 내 훈련 시설 이용은 현재 체육학과 선수에 게만 편향되어 있다. 실제로 경기도지학과와 학우들이 학교생활 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에 경기도지학과 학생회장 최민서 (경기지도 21 스타트 치어리더) 학우는 ‘금 전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는 체 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도지학과와 선수 ‘경기임상실적우 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학적 상 국가지원은 체육특기자에게만 이루어지 기에 경기도지학과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 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학과는 전 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지 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선수뿐만 아니라 은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비올림픽 종목, 비인기 종목 학과 아니야?”

비교적 신선헌과이자 소규모 인원, 적은 호 학우와 하계월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경기도지학과와 체육학과는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이다. 또, 두 학과 모두 다수의 현역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나 등록금 면제, 교 내 훈련 시설 이용은 현재 체육학과 선수에 게만 편향되어 있다. 실제로 경기도지학과와 학우들이 학교생활 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에 경기도지학과 학생회장 최민서 (경기지도 21 스타트 치어리더) 학우는 ‘금 전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는 체 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도지학과와 선수 ‘경기임상실적우 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학적 상 국가지원은 체육특기자에게만 이루어지 기에 경기도지학과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 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학과는 전 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지 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선수뿐만 아니라 은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경기도지학과와 체육학과는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이다. 또, 두 학과 모두 다수의 현역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나 등록금 면제, 교 내 훈련 시설 이용은 현재 체육학과 선수에 게만 편향되어 있다. 실제로 경기도지학과와 학우들이 학교생활 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에 경기도지학과 학생회장 최민서 (경기지도 21 스타트 치어리더) 학우는 ‘금 전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는 체 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도지학과와 선수 ‘경기임상실적우 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학적 상 국가지원은 체육특기자에게만 이루어지 기에 경기도지학과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 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학과는 전 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지 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선수뿐만 아니라 은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두 두 리스트

- [] 당구 배운 것들 복습
- [] 학학회 카드뉴스 제작 및 수정
- [] 일일 준비물 미리 챙겨놓기

나의 하루

내 하루 일과표야. 나는 한국체육대학과 경기도학과에 재학 중이며, 우리 학과는 매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 수업이 끝나면 등기들과 점심을 먹고 바로 당구장으로 연습 하러 가. 내가 다니는 당구장은 합정역에 있 기 때문에 학교랑은 꽤 거리가 있어. 약 1시간 정도 당구장에 도착하면 어제 바로 배웠던 걸 복습하면서 감각을 익혀, 연습이 다 끝나면 게임도 해. 저녁 식사 는 거의 당구장 근처에서 먹는 편이야. 연습이 다 끝 나면 집에 가서 과학생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학교 과제도 틈틈이 해.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면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

경기도 22 (당구) 허채원

01:30 ~ 07:00 잠
07:00 ~ 08:00 아침 식사, 등교 준비
08:00 ~ 09:00 등교
09:00 ~ 13:00 수업
13: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당구장 출근
15:00 ~ 19:00 당구 연습
19:00 ~ 20:30 저녁식사
20:30 ~ 22:30 당구 연습
22:30 ~ 23:30 집으로 귀가
23:30 ~ 01:30 학생회 카드뉴스 만들기&학교 과제

경기도 23 (클라이밍, 스피드) 고지인

00:00~07:30 수면
07:30~09:00 등교
09:00~13:00 수업
13:00~14:30 하교, 점심식사
14:30~16:50 전문지도자 자격증 공부
16:50~22:00 퇴근, 정리
22:00~22:30 퇴근, 정리
22:30~00:00 전문지도자 자격증 공부

두 두 리스트

-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공부하기
- [] 알바
- [] 하루 일정 정리

나의 하루

나는 금요일 공강 빼고는 매일 1~4교시, 월요일은 5~6 교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비몽사몽 등교를 해. 나는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집에 와서 점심을 챙겨 먹고 아침에 등교한 흔적을 치운 후에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16시 50 분까지 정해진 공부를 마치고 알바를 가고, 알바가 끝나 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오늘 한 일들을 정리 해. 잠들기 전에도 간단히 공부하고 잠에 들지.

경기도 22 (댄스 스포츠) 김지호

01:00 ~ 07:15 잠
07:15 ~ 09:00 등교
09:00 ~ 13:00 수업
13:00 ~ 14:30 휴식, 점심 식사
14:30 ~ 16:00 웨이트
16:00 ~ 17:00 연습장소로 이동
17:00 ~ 18:00 저녁식사
18:00 ~ 22:30 연습 (훈련)
22:30 ~ 01:00 귀가, 씻기, 식사

두 두 리스트

- [] 웨이트 트레이닝
- [] 댄스스포츠 연습

나의 하루

나는 거의 매일 1교시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 수업이 끝나면 밥을 먹고 개인적으로 웨이 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 웨이트 트레이닝이 끝나면 내가 연습하는 시설 근처로 이동해서 밥을 먹고 18시 부터 22시 30분까지 댄스 스포츠 연습을 해. 연습이 끝난 뒤에는 집으로 바로 귀가하고, 도착해서는 그날 행거간 가방의 짐을 풀고 씻으러 가. 씻고 나서는 밥을 먹고 양치 후에 잠에 들어.

경기도 22 (댄스 스포츠) 김지호

01:00 ~ 07:15 잠
07:15 ~ 09:00 등교
09:00 ~ 13:00 수업
13:00 ~ 14:30 휴식, 점심 식사
14:30 ~ 16:00 웨이트
16:00 ~ 17:00 연습장소로 이동
17:00 ~ 18:00 저녁식사
18:00 ~ 22:30 연습 (훈련)
22:30 ~ 01:00 귀가, 씻기, 식사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계월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경기도지학과와 체육학과는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이다. 또, 두 학과 모두 다수의 현역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나 등록금 면제, 교 내 훈련 시설 이용은 현재 체육학과 선수에 게만 편향되어 있다. 실제로 경기도지학과와 학우들이 학교생활 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에 경기도지학과 학생회장 최민서 (경기지도 21 스타트 치어리더) 학우는 ‘금 전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는 체 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도지학과와 선수 ‘경기임상실적우 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학적 상 국가지원은 체육특기자에게만 이루어지 기에 경기도지학과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 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학과는 전 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지 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선수뿐만 아니라 은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경기도지학과와 체육학과는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이다. 또, 두 학과 모두 다수의 현역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나 등록금 면제, 교 내 훈련 시설 이용은 현재 체육학과 선수에 게만 편향되어 있다. 실제로 경기도지학과와 학우들이 학교생활 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에 경기도지학과 학생회장 최민서 (경기지도 21 스타트 치어리더) 학우는 ‘금 전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는 체 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도지학과와 선수 ‘경기임상실적우 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학적 상 국가지원은 체육특기자에게만 이루어지 기에 경기도지학과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 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학과는 전 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지 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선수뿐만 아니라 은 퇴한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현역 전문 운동선수로 구 성되어 있는 체육학과와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의 두 학과 간 지원 차이를 설명했다.



올해 3월 13일 한국체대 합동강의실에서 경기도지학과 개강총회가 진행됐다. 전년도 경기도지학과장인 (1열 중앙 왼쪽에서부터)이경숙 교수와 최관용 교수·윤지 윤 교수가 참석했고, 연구원으로 해리에 있는 장영익 교수도 온라인(ZOOM)으로 참가했다.

기자생각

만들어놓고 낙동강 오리알, 이걸 아니잖아요

경기도지학과 학우들은 각자 종목에서 1, 2등 하는 엘리트 선수들만 모여있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다 할지라도 한때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종목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노력하는 법을 아는 인재들을 데려다 ‘나 몰라라’ 식의 학교 행정과 지원은 그들을 흡족의 진주로 만든다. 경기도지학과와 더 나아가 한국체대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금, 그것 들을 해결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그들의 편에서 서서 지원을 보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기이다. 경기도지 학과의 발전을 이끄는 건 학교와 교직원, 더 나아가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실천으로 옮겨주길 바란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낭만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생활 속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공부, 취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낭만이라는 단어의 정의이다. 누구에게는 치열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달콤했던 겨울이 지났다. 벚꽃은 저물었지만, 여전히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와 불쾌하지 않은 바람들에 머리를 흔들린다. 날씨가 좋을 때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운 여름이 오기 전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1980년대 학교생활을 했던 교수와 코로나 이전 2000년대에 학교생활을 했던 동문과 22학번 학우까지. 8면에서는 그들의 ‘썰’을 들고 와 봤다.

권규태 기자 kgt120299@gmail.com

박호근 교수 “대학생의 삶에 필요한 낭만”



학생들과 야외수업을 하고 있는 박호근 교수

지금 우리로서는 영상과 창작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에 그러지는 복고풍과 잔디밭, 통기타 등의 이미지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기자는 1980년도에 대학생활을 했던 박호근 교수를 직접 만났다. 특별히 박 교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박 교수는 매 학기 수업 시간마다 한 번은 꼭 야외 수업을 진행한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낭만 때문이다.

박 교수는 “대학생이라면 낭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애기하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필요가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학교가 금주·금연 캠퍼스로 지정되어 조금 제한적이다. 하지만 대학 시절에 친구들하고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술도 한잔할 수 있고, 그러다 술에 취해서 수업도 땡땡이치고, 그러다가 가끔 F도 맞고 심하면 학사 경고도 당하는 거다.”라며 본인의 대학생활을 회상했다. 이어 “그때 낭만에 취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학사 경고 받을 만큼 지치지 사느냐?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노는 것도 필요한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생 시절의 경험들이 사회생활에 동력이 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학점에 얽매어 ‘집->학교->도서관->집->학교->도서관’ 이렇게 뱅뱅 돈다.”라며 대학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매 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야외수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전을 벤치마킹 한 천마응원단 지도 교수 시절의 목표를 회상하며 답변했다. “천마응원단을 키워서 학교 내의 행사에서 공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류전으로 고연전(연구전)을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체대도 다른 대학과 체육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예를 들면 서울교대도 국립대니까 행사하면서 교류도 하고, 또 거기서 우연치 않게 또 한국체대 학생과 서울교대 학생하고 인연도 맺어지고 그런 즐거움이 있

으면 좋잖아요?”라 답하며 멧쩍은 웃음을 자아냈다.

이제 교수 박호근이 아닌 대학생 박호근을 만나보자. 영화로만 보던 1980년대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박호근 교수는 술과 함께한 대학생활을 털어놓았다. 박호근 교수는 “내가 기억나는 대학생 때 낭만은 학교에서 알게 된 선배들하고 주로 교정 잔디밭이나 근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이다. 강의실에서 수업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다. 술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강의실보다는 대학생활 속에서 배운 점들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박 교수는 “전두환 씨가 제가 1,2학년 때인 86년, 87년도에 대통령을 했다. 나쁜 사람이 대통령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학생운동을 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당시의 시국을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그 당시 교수님들이 ‘내가 너희 마음 아픈 심정을 안다. 근대 내가 교수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도 응원한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교수님들 진짜 존경했을 것이다. 근대 그분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피 흘리고 교도소 끌려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데모할 때,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다.”라며 당시 느꼈던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대학교수가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적어도 한 학기 한 번씩 학생들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인생을 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야외수업의 오랜 연구를 밝혔다.

끝으로 박 교수는 “대학 수업이 널널한 이유가 뭘까? 남는 시간에 놀라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표했다. 또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선배도 있고 존경할 만한 후배도 있고 나랑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반면,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선배배, 동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는 놀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남겼다.



2008년 동기들과 속초로 여행을 간 김덕호 동문

2~3년 전 유튜브 피식대학에서 ‘05학번 이즈백’이라는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었다. 05학번은 아니지만 07학번이면 어떨까? 김덕호 동문의 이야기를 통해 2000년대의 대학생활을 들여다보았다.

“대학 생활 내내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깊게 남는 것 같다.”라며 김덕호 동문은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 동기들은 리듬체조, 댄스스포츠, 수상스키, 스노보드, 에어로빅, 윈드서핑 등 실적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오거나 일반 입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개성이 강하고 유별났다.”라며 당시 유쾌한 동기들에 대해서 회상했다. 김덕호 동문이 속한 레저스포츠학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과 조금 달랐다. 김 동문은 “재학 당시 저희 전공은 야간으로 개설된 학과여서 저녁 6시부터 수업을 했다.”라며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수업 시간대와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재밌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밌는 상황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수업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대라 동기들과 저녁을 미리 먹다가 소주를 갑자기 먹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자체 휴강을 했던 기억도 있다.”라며 대학생 시절 즐겼던 일탈을

소개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존재했던 선배들의 집합이 끝나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려 올림픽공원, 성내천, 둔촌동 등 학교 근처에서 밤새워 술을 먹고 해가 뜰 때 귀가했던 기억도 난다.”라며 추억을 되돌아 보았다. “해가 뜰 때면 꼭 학교 정문의 ‘한국체육대학교’ 글씨 앞에서 해 뜰 때까지 술 마셨다는 인증사진을 찍고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렇게 밤을 새워도 너무 좋았던 점은 수업이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을 안가면 안 갔지 지각한 적은 없던 것 같다.”라고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김덕호 동문은 이외에도 “동기들과 넓은 자취방을 옆집으로 2개 연어 가족처럼 서로의 반찬을 모아서 밥도 함께 차려 먹고 매일 같이 술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 캠퍼스의 낭만을 느껴보려고 동기들과 대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돛자리 펴고 소주를 먹었던 기억도 있다. 경비 선생님께서 쫓아오셔서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다.”라고 과거의 만행을 고백하며 “말하고 나니 조금 부끄럽긴 하다.”라고 추억을 회상했다.

당시에는 2학년이 되면 전공의 신입생으로서(당시에는 스포츠건강복지학부 레저스포츠전공으로 들어갔다.) 100여 명의의 선배님들 앞에서 장기자랑과 신고식을 했었다고 한다. “합동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너

무 떨어져 동기들과 소주 반병씩 한꺼번에 마시고 하고 들어가서 기억도 안 나는 장기 자랑을 했던 기억도 난다.”라며 긴장한 새내기로서의 모습도 말해주었다.

김덕호 동문의 이야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았다. “선배들에게 혼나고 강의실에서 나와 바로 강원도 속초로 갔던 동기들과의 여행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당시의 여행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지할 정도의 이유로 혼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술을 먹기보다는 여행을 가자!’고 해서 동기들 차량을 이용해 무작정 강원도로 출발했다. 다들 반항심과 힘이 극에 달했을 때라 충동적으로 갔던 여행이었는데, 거기서 동기들과 술을 먹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 졌다.” “그때 당시 혼났던 주요원인이 용모와 복장이었기 때문에 반항심을 표출하고자 몇몇 동기들이 여행 후에 삭발하고 학교에 갔다가 그날 더 혼났던 기억이 난다.”라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를 들려줬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낭만이 있나는 질문에 김덕호 동문은 자신이 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말을 남겼다. 김 동문은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이게 낭만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다만 대학생활하는 동안 함께 동기들과 여행을 한 번 가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시거나 각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직장인이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시간을 내어 여대를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라며 현재 대학생의 위치에 있는 학우들에게 조언 했다. 더불어 “당장 눈앞에 놓인 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동아리, 대외활동, CC 등 활동들을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한 재학 동안 주변 선배배, 동기 학우들과 좋은 인연, 추억 만드셨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학업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가끔 추억에 남은만한 일탈도 해보았으면 한다.”라고 학업 외에 우리들이 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채영 학우(스포츠산업 22) “우리는 시험 전 날에 야구 보러 가”

시간이 흘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낭만은 물론 모든 것이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낭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재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재개되었다. 그로부터 1년 남짓 대학생활을 한 22학번 학우는 어떨까? 우리들 근처에 있는 평범한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코로나 끝물에 대학에 들어왔음에도 기억에 남는 게 있냐’는 질문에 “볼링도 자주 치러 다니고, 학교 끝나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강도 가고, 학교 축제 때 동기들과 모여 학과 부스를 체험하고 연예인을 보면서 즐겼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도 최근에 종합운동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갔던 게 가장 많이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채영 학우는 최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와 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보러 갔다. 그러나 이채영 학우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팬도 아닌 경기에 왜 보러간 걸까? 이채영 학우는 “다양한 지방에서 올라온 동기들이 많고 다들 응원하는 팀이 달랐다. 동기들이 응원하는 팀과 제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었겠지만 다른 지방으로 경기를 보러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야구를 보러간 날짜가 4월 28일 인데 그 다음날에 생활체육지도자 시험이 있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채영 학우

학교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랑도 겹치기도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소 할 겸 야구장에 너무나도 놀러가고 싶은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동기 중에 작년에 엘지에서 북돌이(야구장에서 응원가와 율동에 맞춰 북을 치며 흥을 돋우는 역할)로 일했던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일 하기는 하는데, 구단이 너무 바빠 요청을 할 때 한 번씩 야구장에서 잠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마침, 그 날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엘지와 기아 경기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도 기아 팬인 동기 2명과 함께 종합운동장에 갔다.”라고 동기들과 잠실야구장에 놀러가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사 필기시험이 그 다음날 있어 야구장에 교재를 들고 가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다. 다행히도 평소애 해 둔 게 있어서 필기는 합격했다.”라고 말하며 놀면서 공부까지 행기는 이채영 학우는 필기 시험 전 날, 공부 아닌 야구장 방문을 택하면서 젊어서 할 수 있는 낭만을 행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남은 학교생활 동안 하고 싶은 것이 있나는 질문에는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항상 아쉽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통기타와 잔디밭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낭만이라는 걸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펴고 놀기에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캠퍼스가 좁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대신 올림픽공원이 학교 옆에 붙어 있어서 아쉬운 점을 공원이 채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을이 오면 시간 맞는 동기들과 돛자리 들고 올림픽공원에 가보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된다면 맥주도 한잔하면서 동기들과 가을바람 맞으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른 학교처럼 멋지고 넓은 광장은 없어도 걸어서 바로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다는 것이 한국체대만의 또 다른 장점 아닐까?”라며 우리대학의 강점을 어필했다.

기자생각

원고를 쓰는 이 시점, 밖에서는 교내 축구대회 ‘라리가’로 학우들의 함성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메우고 있다. 4월호 기자석에 송현일 기자가 “우리가 대학교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쓴 글이 있다. 글에서 언급했듯 우리가 진정 대학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얻어가는 것은 실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술 먹고 실수도 해보고, 하루 쫓은

자체 휴강을 하고 롯데월드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9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으로 달려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응원을 부르는데도, 올림픽공원에서 러닝을 뛰거나, 체력단련실에서 공간인 사람들과 열심히 운동을 해도 좋다. 나중에 대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치열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들로 대학생활과 캠퍼스 라이프를 낭만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진로 고민 상담소 : 미디어편

5월에도 어김없이 진로 고민 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미디어 계열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우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다. 졸업생 중 관련 종사자 수가 적어 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질문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한국체대 졸업생이니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얻어가길 바란다.

송현일 수습기자 click21@naver.com



동행 학우 소감

학보사에서 현직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 뵈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매력적인 직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뵈고 이야기를 들으니, 인터넷에서만 보는 피상적인 이야기 외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꾸는 저에게 정말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김소희
노인체육복지 22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청소년지도학과 11학번 변효성입니다. 현재 SPOTV에서 캐스터로 활약하며 해외축구, 해외농구, 메이저리그 등 다양한 종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Q. 스포츠 캐스터란 어떤 직업인가요?

A. 스포츠 캐스터와 해설 위원의 역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축구 중계 시 “손흥민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 서 있어서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경기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설 위원의 역할입니다. 캐스터는 주로 “손흥민 공 잡았습니다. 직접 드리블 해서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해리 케인에게 패스합니다.”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Q. 스포츠 캐스터는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1차 카메라테스트 전형, 2차 실무 능력 테스트 전형, 3차 면접 전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류도 물론 제출하지만, 실질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죠. 오히려 특별한 스펙 없이도 실력만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익이나 자격증보다는 먼저 실질적인 실력을 쌓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Q. 스포츠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학원에 다녀야 할까요?

A. 현실적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준비해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캐스터는 ‘추천 제도’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에서 학원에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의뢰받은 학

원 내에서 자체 오디션이나 강사의 추천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 추천 제도를 통해 첫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Q. SPOTV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나운서 학원은 얼마나 다니셨나요?

A. 저 같은 경우 ‘봄온 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 기초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주 2회 5개월 과정이었고, 비용은 3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후, 스포츠 캐스터 강좌를 추가로 들었는데 이때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첫 중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SPOTV 아카데미’와 ‘한국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강좌를 수강하며 꾸준히 채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SPOTV 입사 전까지 총 3개의 학원에서 4개의 강좌를 수강한 셈입니다.

Q. SPOTV 캐스터가 되기까지의 취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첫 중계는 추천 제도를 통해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스포츠 캐스터 강좌 수료 이후 강사님이 내셔널 K3, K4 축구 리그 중계 자리를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중계를 생각보다 일찍 경험했으나 이후의 길이 모두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SPOTV에서 중계하고 있지만, 첫 중계 이후 안정된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약 70만가량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Q. 스포츠 캐스터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나운서 직업군 자체가 수입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 캐스터는 그중에서도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제 연봉에 대해 살짝 언급하자면 초봉 기준으로

모 공기업에 취직한 제 친구와 비슷한 정도였으나, 친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 폭이 컸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높지 않다는 것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니 즐길 준비가 돼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에 현재 직업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중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을까요?

A.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중계하는 것도 좋아해서 일 자체는 너무 즐겁습니다. 다만 해외 스포츠 경기는 보통 새벽 시간대에 있어서 삶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새벽에 중계하고 쪽잠을 잔 후 아침에 다른 경기를 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주로 주말에 있어서 주말에 쉬기 어려워요. 정리하자면 삶의 패턴이 일반인과 다르고 불규칙하다는 점이 스포츠 캐스터의 단점입니다.

Q. 마지막으로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하는 학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대다수의 캐스터 지망생이 학원에 다니며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실력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하죠. 저 역시 실력의 기반을 대학교 3, 4학년 시절에 홀로 연습하며 쌓았습니다. 모든 스포츠 중계가 곧 검증된 답안지입니다. 캐스터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가면서 더 좋은 소리를 내고자 연습해 보세요. 학원에 다닌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디 스스로 ‘검증된 답안지’와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17학번 이지영입니다. 현재 서울경제TV에서 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체육대학보 기자 출신인데, 학보사와 인터뷰이로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Q. 방송 기자란 어떤 직업인가요?

A. 기자란 누구보다 진실을 빠르게 파헤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직업입니다. 기자는 크게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로 나뉘는데, 방송 기자도 기사를 쓰긴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다는 점이 신문 기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방송 기자의 채용 과정이 궁금합니다.

A. 방송 기자는 일반적으로 1차 서류 전형, 2차 시사상식 & 논술 & 카메라테스트 전형, 3차 면접 전형으로 나뉩니다. 신문 기자와 달리 카메라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채용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기자인 만큼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매우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토익은 800점 이상이면 괜찮다는 업계 내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우선 시사상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약술하라”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해당 키워드를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본인이 현재 한국은행 총재라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같은 질문에 자기 생각을 넣어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테스트의 경우, 방송 기자는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서 말로써 보도하므로 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3차 면접 전형은 기자

개인에 관한 질문이나 업무 역량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솔직하게 답변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선배님의 구체적인 취업 노하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우선 자기소개서의 경우 형식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풍부한 삶의 경험에 내용에 잘 녹아들어야 합니다. 시사상식은 스테디 활동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언론사를 정한 뒤 해당 언론사가 이슈에 대해 다룬 보도 내용을 요약해서 한 곳에 모읍니다. 이렇게 되면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사상식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가 같은 이슈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속보의 헤드라인만 보고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도록 혼자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도 팁을 조금 드리자면, ‘기자답게’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지양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담백한 글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Q. 방송 기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편이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인’ 등 채용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다만 방송 기자와 신문 기사를 포함한 모든 기자는 보통 정해진 월급 외 ‘취재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월 50만 원의 취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비는 월급과 별개의 항목이고 세금도 떼지 않으므로 연봉 외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부생 때 했던 활동 중 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느낀 활동이 있을까요?

A. 학보사, 네이버 스포츠 기자단, 그리고 KTV 국민기자단 등 기자와 관련된 교내 및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방학 때마다 각 언론사에서 단기 대학생 인턴 기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카페 ‘아랑’에 이러한 채용 관련 정보가 많으니 꼭 가입해서 찾아보세요.

Q. 상상했던 기자의 모습과 현재 본인의 모습에 차이가 있나요?

A. 제가 상상했던 기자는 사명감 넘치고 정의로운 모습이었는데, 저는 경제부 기자여서 그런 모습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딱딱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상상한 기자의 모습은 사회부 기자와 더 가깝긴 하죠. 그래도 저는 제 일에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찬 것 같아요.

Q.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기자로서의 목표가 있을까요?

A. 최근에는 기자가 아나운서 대신 직접 앵커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현재는 경제부 기자지만 사회부나 경제부 등 모든 출입처를 경험한 후 풍부한 내공을 바탕으로 직접 뉴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자이자 앵커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기자를 준비하는 학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기자 관련 활동을 통해 기자로서의 역량을 쌓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파



로 있습니다. 기자 활동 외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자에게 경험은 그 자체로 무기입니다. 저는 학부생 시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보조 심판, 100회 전국체전 탁구 종목 참가, 래프팅 가이드 등 다양한 활동을 했

습니다. 기자와 관련된 활동이 아님에도 면접관이 이러한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한국체대 출신인 점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기자 관련 활동도 당연히 좋지만, 여유가 된다면 꼭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길 추천합니다.

기자 생략

학보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5월호의 진로 고민 상담소를 담당하게 돼 굉장히 뿌듯하다. 특히 기자 본인도 미디어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기에 더욱 뜻깊은 취재가 아니었다 싶다. 졸업한 선배들과 얘기하며 느낀 점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한국체대인만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 이 글을 보는 이도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분명 꿈을 이룰 것이다. 학보사는 앞으로도 학우들의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해 달릴 예정이다. 한국체대 재학생이라면 모두 환영이니 언제든지 진로 고민 상담소의 문을 열길 바란다.

한국체대 태권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은 ‘태권도’다. 우리나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면 한 번쯤은 해보았을 태권도. 하지만 태권도는 과거 올림픽 정식 종목 퇴출론에 휩싸였고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우리가 앞장서 태권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리며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우들은 태권도부와 태권도학과의 차이점조차 잘 알지 못한다. 학우들에게 이러한 차이점과 겨루기, 품새 등 태권도의 여러 영역에 대해 더 알리고 싶어 이번 5월호에서는 태권도부, 태권도학과 학우들을 만나보았다.

이선우 수습기자 sunwoolee4747@naver.com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홍승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우리학교에 태권도학과와 체육학과 태권도부로 각각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A. 먼저 체육학과 태권도부와 태권도학과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목입니다. 체육학과는 겨루기 종목만을, 태권도 학과에는 품새, 겨루기, 시범 등 여러 종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품새를 전공했기 때문에 태권도학과로 진학하게 됐어요. 제가 속한 태권도학과는 스포츠문화예술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선수나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체육학과 학우들은 오후 일과에 훈련이 포함되어있지만, 태권도학과는 동아리 내에서 학과 학생들끼리 따로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하는 장소나 시간도 스스로 잡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바람은 선발전 같은 중요한 대회들엔 조금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Q.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A. 태권도를 처음에 재미로 시작하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이예요. 태권도를 하다 보니 품새라는 종목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또 성격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사람들과

홍승표 학우(태권도학과 20)
“강한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면까지 강하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딪히는 종목보단 혼자 하는 종목이 저와 더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품새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전문적으로 품새를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Q. 품새가 큰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품새는 제가 동작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작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저만의 품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완성된 품새를 볼 때 가장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 제 노력이 전부 동작에 녹아있다는 점 역시 품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Q. 많은 태권도학과 중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A. 타 대학들도 아주 좋은 학교지만 우리 학교는 국립이기도 하고 다른 대학들에 비해 뽑는 기준이 더 엄격해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전국대회 메달이 있어야지만 학교에 접수를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실기를 봐서 공인 품새가 6

명, 자유 품새가 4명, 시범이 5명 정도로 소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큰 학교라고 생각해 우리 대학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Q. 태권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매력이나 경기 관련 포인트가 있나요?

A. 올림픽에서 나오는 겨루기가 태권도의 가장 주요 종목이라고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있는 거 같아요. 품새, 격파, 기록, 시범 등 다른 종목들도 겨루기만큼이나 화려하고 볼 게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우 여러분이 겨루기 이외에 다양한 종목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범 중에 ‘공중 장애물 도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5m 정도의 공중에서 발차기 하거나 도는 고난도 기술이예요. 선수들이 많이 다쳐가면서 성공하는 기술들인 만큼 경기 관람을 하신다면 많은 환호를 보내주세요. 저희 태권도학과 학우들이 뿌듯해 할 것 같습니다.

Q.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나요?

A. 유연성이 안 좋은 편이예요. 발차기를 하느로 향해 곧게 차야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다리를 찢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또 대학교 오자마자 코로나19 때문에 단체 운동

할 때도 한계가 있고 시합도 취소되다 보니까 슬럼프가 크게 왔어요. 앞선 데 뒤틀린 격자유 품새를 준비하다가 무릎이 다쳐서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당시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대회 뛰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 관리를 중점으로 두며 복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현재는 복귀한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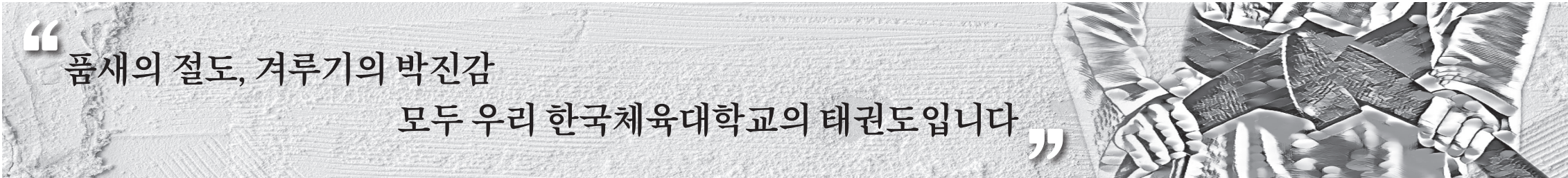
Q. 최종적인 목표나 꿈이 있나요?

A. 태권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도해 주신 관장님을 보면서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관장님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실력보다는 인성적인 면을 성장시켜주고 싶어요. 강한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면까지 강하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기에 태권도는 유소년들이 어릴 때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정신 건강

뿐만 아니라 자신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성인이 되고 했을 때 더 큰 메리트가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겨루기나 격투 같은 종목은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고 품새는 유연성, 근력 그리고 몸의 밸런스 모두를 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온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태권도에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학과 태권도부 20학번 김두환입니다. 현재 주장 역할 맡아서 대표로 코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같은 부 학우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Q. 태권도부의 일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태권도부의 일과는 기상 후 새벽 운동을 한 후 오전 수업을 갑니다. 오후에는 전문 실기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

김두환 학우(체육학과 태권도부 20)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힘든 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하자라고 항상 생각해요”

니다.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은 후 야간 운동을 합니다. 야간 운동이 없는 날에는 따로 운동하거나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오후 9시에 기숙사에 다시 들어와 취침합니다. 새벽에는 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오후에는 겨루기나 전술적인 부분을 키우는 운동을 합니다.

Q. 겨루기를 주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어릴 때 태권도장을 매일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겨루기 경기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선수가 멋있는 발차기로 상대 선수로부터 점수를 따내고 이기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날 큰 흥미를 느껴서 겨루기를 본격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평소엔 활발하고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겨루기가 제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Q.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언제인가요?

A. 처음 배우게 된 건 유치원 때부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강한 승부욕이 있었어요. 우연히 경기에 나가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도장 출신이었던 제가 선수를 준비했던 친구들을 제치고 운 좋게 1등을 했어요. 그때의 희열감과 성

취감이 잊히지 않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겨루기 규칙이나 특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겨루기는 라운드제로 진행되는 데 총 3판을 해서 먼저 2승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에요. 경기 내내 감점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감점 5개 먼저 받게 되면 ‘감점패’를 하게 돼요. 상대로부터 점수를 따는 방법은 몸통을 가격하는 점수 2점, 머리는 3점이에요. 회전을 이용해서 가격하면 점수를 1점씩 더 주고 주먹으로 몸통을 가격하면 1점을 줍니다. 태권도가 세계화되면서 외국 선수들도 참여하는 비중이 늘었는데 외국 선수들이 앞발을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 뒷발보다 앞발을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Q.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이런 매력을 꼭 알아줬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A.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인 만큼 많은 매력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태권도는 다 함께 기합을 넣으며 훈련하는 스포츠예요.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혼자서 고통을 인내해야 하지만 태권도 만큼은 다 같이 목표를 향해 훈련하니 지루

하지 않고 유대감을 키워줍니다.

Q.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A.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성적을 내지 못해 마음이 매우 조금 해서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몸을 다치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도 정신적으로 무너졌었어요. 전 부상당했을 때 마음을 조금하게 먹지 않고 최대한 치료에만 집중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저만의 멘탈 관리법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남들 시선에 의식하지 말기’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잃었던 자신감도 돌아와 더 성장한 나를 볼 수 있어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Q. 평소에 존경하는 운동선수가 있나요?

A. 네. 유명한 선수인데 전 이대훈 선수를 존경합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이름을 알린 선수는 이대훈 선수가 유일무이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대단하고 멋있다고 느껴요. 국가대표의 자리는 올라가는 거 보다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무려 11년 동안 국가대표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저의 롤모델입니다.

Q. 자신만의 신조나 좌우명 있나요?

A. 운동할 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힘든 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하자라고 항상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 때도 웃으면서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힘들 때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자 생 각
기자 역시 태권도를 떠올렸을 때가 장 유명한 종목인 겨루기만 떠올랐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른 종목에도 큰 관심이 갔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품새의 절제된 미가 큰 매력으로 다가와 태권도를 다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여전히 위기다. 성적도 예년만 못하다. 또한, 한 번 일었던 폭풍이 다시 불지 말라는 법이 없다. 태권도의 인기가 하락해 또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 퇴출설이 대두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체대 학생으로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스포츠를 지키지 못했다는 큰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우리 학교 학우들이 먼저 태권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한다면 태권도의 위상이 올라감은 물론 선수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편집장레터

소통의 허브, 학보사



한지용 편집장

“여러분, 소통해요” 학과 선배인 김준영 학우(레저스포츠산업 18)가 학과 전체 단독방에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학과 단독방은 공지를 위해 사담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선배의 인사에 나와 동기 몇몇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었다. 우리 학교,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관통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준영 선배 역시 장난을 섞긴 했지만 소통하자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준영 선배는 지난해 복학했을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학과 활동이 줄어들어 학반 간 괴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소통하고자 말하는 것이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해 후배들에게 “소통해요”라고 인사한 것이다. 단절의 시간을 지나 극복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코로나로 인한 소통의 부재를 겪은 것은 단순 학생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동안 우리 대학은 구성원 간 소통의 부재로 여러 차례 내분을 겪어야 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주요 사안을 독단적으

로 결정한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는 곧장 학내 갈등으로 이어졌다. 반복되는 갈등은 우리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불통’은 어느덧 우리 학교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최근 학내에서 논란이 됐던 생활관 통제 이슈 역시 소통의 미흡함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나는 이를 직접 취재하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가 갔고, 생활관 측의 통제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통제의 배경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먼저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통보보다는 대화를 앞세워 화합을 이뤄야 할 시기다. 대화를 통한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행히도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학교의 가장 큰 어른인 문원재 신임 총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고 있다. 5월 초, 문 총장님의 취임을 맞아 나와 후배 기자는 총장님을 찾아뵙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총장님은 인터뷰 내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학내 모든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학교를 이끌 것이라 말씀하셨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제 우리 대학의 불통 이미지가 드디어 사라질 때가 왔음을 실감했다.

문 총장님께서 소통의 뜻을 밝히신 지금, 학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해보았다. 그 결과,

학보사 역시 학내 구성원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을 깨달았다. 나아가 모든 학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한국체육대학보는 학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학생들의 궁금증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학우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 교직원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끊임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준영 선배가 말한 선후배 간의 소통부터 문 총장님이 말한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선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추억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어렵지 않다. 함께 밥을 먹고 맥주 한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통의 방법이다. 또한, 학내 문제 해결 및 학교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불통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문 총장님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만큼 학보사를 포함한 우리 대학의 모든 집단과 구성원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소통이 우리 대학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보사는 이러한 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기자석 II

우리는 모두 한국체대 학생입니다



원지호 수습기자

한국체육대학교는 대한민국 유일 체육종합대학이다. 이곳에 속해 있는 10개의 학과에서는 많은 학생이 미래의 체육 인재가 되기 위해, 혹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체육단련장에서 몸을 가꾸고 키우는 학우들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지식을 쌓는 이들까지. 다 같은 한국체대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서로를 협공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보게 된다. 체대생이다 보니 경쟁의식이 너무 강한 탓일까? 아니면 본인을 과시하고 싶은 것일까?

예전부터 이어진 체육학과 선수들과 소위 일반학과라고 부르는 생활체육대학(이하 ‘일반학과’) 학생들의 갈등은 아직도 여전하다. 그중 많은 사례가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생긴다. 우리 학교의 체육단련시설은 어느 학교보다 좋다고 자부할

수 있다. 좋은 기구를 사용하는 몸 좋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나도 어느새 벤치에 누워 있고, 덤벨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갈등은 항상 이곳에서 시작됐다. ‘운동 시간을 지켜달라’, ‘운동 기구 정리를 잘해달라’라는 얘기가 들리곤 한다. 물론 일반학과 학생이 했던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학우가 그런 건 아니다. 또 체육학과 학우일 수도, 교직원일 수도 있지 않은가. 흔히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 명의 체육학과 학우들이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며 ‘체육학과는 운동만 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혹여나 누군가 ‘체육학과 학우들은 전부 상식이 부족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가정교육 혹은 본인의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일 뿐이다. 학장 시절 피파 흘리며 했던 운동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더불어 일반학과 간의 갈등도 종종 드러난다. 특정 학과에서 논란거리가 생기면 너도나도 앞다퉈서 힐끔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우리 학교 입결(입시 결과)은 어느 과가 가장 높아?” 가장 많이 본 질문이고, 항상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논쟁이다. 사실 논쟁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도 이런 다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며 설전을 벌이는 본인들은 얼마나 뛰어나길래 남을 평가하는 것인가? 물론 특수체육교육과는 두 개의 교원자격증이 나온다는 특수성에 당연히 성적대가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다. 고등학생 시절 치렀던 시험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아직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에 수능 성적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좌표가 될 수 없다. 현재 어떤 역량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여나 학교생활을 하는 중 불만이 생긴다면 눈을 한번 꼭 감고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의 선창에 맞춰 입학 선서를 외치지 않았는가. 그 설레던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체대 학생이다.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본인들만의 경쟁력을 찾았으면 한다. 그것이 지식이나 근육이어서 상관없다. 학교 밖은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이지만 안에서는 화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기자석 I

대한민국은 왜 무릎을 꿇는가



기민정 기자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제삼자의 변제’.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변제 방식을 골자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변제(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을 마련해 판결금 지급)하는 방안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 설명했다. 즉,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배상을, 되려 대한민국이 대신 ‘셀프 배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우리 정부의 술선수법 ‘무릎 꿇고’ 들어가는 외교를 통해 한-일 양국 간 서를 외교(양국 간 회담 및 외교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양국을 오가며 벌이는 외교활동)는 12년 만에 재개됐다. 그리고 5월 7일 방한(韓)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혔으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私見,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무언의 선을 그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에 적극적인 화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반면, 돌아오는 일본의 암묵적인 대답은 항상 일관됐다. 7.18 한일외교장관 회담 당시 제3자 해법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으나 기시다 총리와 정부 주요 관료들은 이후 광복절에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했으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교과서를 편찬했다. 이뿐인가? 일본 ‘2023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시하면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한국의 시찰에 안전성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한쪽의 일방적인 ‘맞춰주기식’ 외교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외교관계를 두고 정부 스스로 엄청난 성과라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UN총회에서 채택한 가이드라인(피해 배상에는 사실 인정과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등이 포함돼야 한다)에 따른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소지가 있는 변제 방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변제 방안 공식 발표 이후 가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본인이 생각했다며, 이후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청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본을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남긴 바 있다. 정작 자국 내의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굴욕 외교’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말이다.

해당 문제가 필자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이어져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이를 지원하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두 달 전 무더운 여름날, 필자는 ‘한일청소년 평화교류단’의 일원으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여전히 먼 나라 일본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7박 8일 간의 여정을 떠났다. 당시의 도야마현 ‘후지코시’ 회사 앞에서 문전행동(회사 정문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 견학은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회사 정문 앞에서는 호쿠리쿠 연락회(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변변찮은 장비를 가지고 문전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시위 현장

에서나 다름없이 경찰에 의해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그 너머에는 육일 승천기와 함께 커다란 화성기가 달린 서너 대의 봉고차, 지프차를 몰고 온 일본 우익집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목적이야 시위를 방해하기 위함임이 뻔했다. 후지코시를 향한 촉구의 외침은 시작됐고, 역시나 우익 집단은 커다란 화성기를 통해 시위를 방해했다. “야매로(야めろ, 그만해!)”하는 비열하고도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니 억울함을 비롯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바깥, 심지어 정문에서 그 정도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면 회사 측에서도 얼굴을 비취 볼 법 한데, 얼굴을 내밀어보기는커녕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물류를 운송하는 트럭들만이 종종 얼굴을 내밀 뿐이었다. 그렇게 한데 영긴 소음을 속 정문 한편에는 함께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피해자 분들의 영정사진이 환한 웃음으로 변함없이 함께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며, “유럽은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했다.”고 이야기했다. 나치로 대표되는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본국 그리고 선대가 저질렀던 과오를 잊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오고 있다. 1970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피해국인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가해국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폴란드 간 동반 관계는 성공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유럽에서와 같은 미래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일과 폴란드와 같이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외교를 위해 꿇었던 무릎과,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던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보게 된다.



후지코시 문전행동을 함께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정사진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문원재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한지용
기 자 | 기민정·김수빈·권규태·박소영·박서진·송현일·원지호·강민지·강현석·박정윤·이선우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
전 화 | (02)410-6556

한국체육대학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이름, 연락처, 학번, 학과를 기입해서 이메일(actibeast@knsu.ac.kr)로 보내주시거나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로 방문 바랍니다. 원고가 실리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피와 땀은 물보다 진하다

5월의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열심히 훈련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누구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한국체대 학우 중 최고의 운동 파트너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학우에게 파트너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파트너에 대해 나와 오랫동안 지켜본, 나와 많이 닮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바로 가족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정윤 수습기자 junung88@naver.com

노윤주 학우(사회체육 23) “렐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의 대화”



사회체육 노윤주 학우(왼쪽 두 번째)와 학우 가족

Q. 누가 제안해서 가족 스포츠 활동이 시작된 것인지,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노윤주 학우 아버지(이하 ‘부’): 결혼 전부터 동아리나 회사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함께 하지 못한 대화를 주말에 운동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

A. 노윤주 학우(이하 ‘노’): 운동을 같이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4살 때부터 아버지의 조기축구에 따라갔던 것부터입니다.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보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버지를 따라 스포츠를 즐겼 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시작했지만, 탁구나 농

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해왔고 요즘은 주기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Q.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 다툼이 있을 때도 해결하는 과정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A. 부: 딸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서 멀어질 뻔했지만, 같이 조기축구를 나가면 서 그 시기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만들고 대화를 이어 나가기 때문에 사춘기 때 부모님이 갑자기 친절하게 말을 걸어온다던가, 너무 엄하게 혼을 낸다고 딸이 느끼지 않도록 했 습니다.

노: 맞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긴 하지만 다툼 후의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운동

으로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느낍니다. 또 편을 나누어 경기 내기를 해서 저녁 메뉴를 정하거나 가사를 분담합니다. 정당하게 경기로 정하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가사 일로 싸울만한 요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Q. 가족 중 운동능력은 내가 최고다!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A. 노: 아무래도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제가 아닐까요? 체대 입시를 거쳐 체력을 다졌고 현재 축구 동아리에서 꾸준히 운동하며 축구 기술도 배우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제일 운동능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 동의하지 않습니다.(웃음) 딸의 운동 유전자는 저에게서 왔습니다. 딸이 지금 젊기 때문에 운동능력이 좋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해서 운동능력을 유지하는 저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하면 노하우를 가진 제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노: 아버지께서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능력이 좋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유전자를 잘 활용하고 훈련한 제가 더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Q. 노윤주 학우는 어떤 딸인가요? 그리고 학우에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부: 크게 말쑥 피운 적 없이 잘 커준 고마운 딸입니다. 함께한 가족 스포츠 속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내어 한국체대에 진학한

것을 보면 기특합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딸이 좋아하는 진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나갔으면 합니다.

노: 아버지는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심어주시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고 싶은 것에 의심 없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다 같이 운동하면서 소통의 창구를 계속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무한 감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Q. 혼자 하는 스포츠와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각각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나요?

A. 노: 동아리에서 운동하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에서 편안함과 기쁨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특점임에도 나의 일처럼 기뻐주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맞춰나가는 그런 편안함이 가족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실내 운동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가족과 같이하기 좋으니, 가족들과 함께 해 보셨으면 합니다.

To. 부모님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윤주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엄청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약간 오글거리는 거 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편지를 쓰나 싶기도 하네요. 우선 21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던, 운동하면서 놀기만 하던 아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네요. 재수할 때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늘 하고 싶은 거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김수연(노인체육복지 22)·김하연(스포츠산업 22) 학우 “가장 사랑하는 나의 경쟁자”



김하연(좌), 김수연(우) 학우가 FC천마 경기 직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Q. 쌍둥이가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으로 입학하니 정말 멋있습니

A. 김하연 학우(이하 ‘하’):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저희의 소심한 성격을 걱정하셔서 6살에 태권도장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운동의 흥미를 돋게 해서 한국체대 입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수연(이하 ‘수’): 사실 체대 진학을 결정한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체대 진학이 어떨 것 같는지 고민 상담을 하면서 마음먹던 중, 하연이도 듣다 보니 본인도 체대 진학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마음먹기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도 옆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게 많습니

Q. 같은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 함께 하는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하: 교류전에 나가거나 대회를 나갈 때 수연이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승하거나 득점했을 때 더 기쁩니다. 만약 경기에서 지더라도 서로 같은 감정을 나누면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 같이 집에 가면서 경기했던 영상을 보며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이자 가족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하며 칭찬하고 조언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고칠 점을 생각하기도 하고, 칭찬받더라도 너무 들뜨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Q. 사실 저는 멀리서 수연, 하연 학우를 마주치면 헛갈립니다. 닮은 외모로 생긴 일화가 있나요?

A. 수: 각자 학과 점퍼를 입지 않고 온 날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우와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연이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학우분도 민망하니까 인사를 건네주시는 학우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 축구 동아리에서 다른 대학과 교류전을 할 때 상대 팀이 헛갈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분신술처럼 상대편을 교란해 보라고 농담하실 때가 있습니다.

Q. 이것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축구 기술과 서로에게서 땀어오고 싶은 감정이 궁금합니다.

A. 수: 킥에 약점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했더니 요즘은 킥을 차는 기술과 힘이 하연이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연이의 센스 있는 패스 능력을 땀어오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까지 보고 패스하는 능력이 부럽습니다.

하: 저를 뛰어넘는 킥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훈련과 보조 운동도 열심히 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저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수비수로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는 힘은 인정합니다. 이런 힘은 땀어오고 싶습니다.

Q. 학창 시절 특히 입시 때에는 같이 체육 계열에 진학하려는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A. 하: 의지보다는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이어서 결과는 성공적으로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체대에 같이 가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입시 결과의 1지망이 한국체대로 결정되어 같은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수: 그래도 입학 후에는 의지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하기보다는 둘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또, 잘못했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단호하게 따끔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지만 친구로서 성격도 정말 잘 맞아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To. 할머니, 엄마, 아빠께

할머니, 엄마, 아빠! 저희 수연이, 하연이예요.

평소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 덕분에 어느덧 성인이 되고 한국체대에 같이 입학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저희가 짜증내고 그래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더 사랑하고 더 잘하는

쌍둥이가 되게요. 기대해 주세요!!



기자생각

매년 가정의 달이 되면 형식적으로 가족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얼굴도 장을 찍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죄송하고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가족 스포츠를 하는 학우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결속은 큰 의미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과처럼 자주 대화하고 운동하며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기자 본인도 가정의 달을 핑계로 주기적인 가족 스포츠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학우들도 실천해 보기 바란다.